

우리나라 초, 중, 고 학습자의 영어학습주도성 연구

김혜영, 김은화*
(중앙대학교)

Kim, Heyoung, & Kim, Eunhwa (2012). A study of Korean students' self-directed language learning readiness (SDLLR). *English Language Teaching*, 24(1), 145-165.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how well Korean students are ready for self-directed language learning and how their readiness has been changed by learning English for their public school years. 1,391 Korean students were investigated on their Self-Directed Language Learning Readiness (SDLLR, H. Kim & M. Kim, 2009) across the age groups, elementary, middle, and high school groups. Their SDLLR was also compared to their self-directed learning readiness (SDLR, H. Kim & K. Kim, 2010), modified from Guglielmino's scale (1977) to check if there is any particular difference in learning between English and other subjects. Furthermore, this study attends to other 'student' factors that might influence their SDLLR, such as motivation, gender, study-abroad experience, and age to start learning English. The result shows that Korean students' SDLLR significantly decreases as they study English longer. Surprisingly, the average scale score of SDLLR in the elementary school group was significantly higher than that in the other two groups. This decreasing pattern was also similarly shown in the SDLR measurement, but their SDLLR score was significantly lower than that of their SDLR. Motivation, gender, age to start learning English, and overseas study experience all significantly influenced their SDLLR. In conclusion, Korean students do not seem to successfully develop their language learning autonomy from their learning experience during public school years. Many students fail to hold their motivation, confidence, and responsibility in learning English. The Korean national curriculum aiming at developing the self-directed learning ability needs to be systematically reviewed and revised to achieve their ultimate goal.

I. 서론

‘자기주도학습(Self-directed learning),’ 학습자의 ‘자기주도성(self-initiative)’¹이라는 말은 불과 몇 년 사이에 흔히 들을 수 있는 우리 사회의 키워드가 되었다. 교육정책, 교사교육, 학술 연구, 학원, 상품 광고에 이르기까지 많은 영역에서 학습주도성은 강조되고, 그 교육적 가치를 인정받고 있는 듯하다. 특히 영어교육

*김혜영: 주저자, 김은화: 공동저자

¹본 연구에서는 ‘자기주도학습능력’과 ‘자기주도성’을 동일시하여 사용하였다.

에 있어서 자기주도학습능력은 그 어느 영역보다도 강조되고, 더욱 빈번하게 회자되고 있다. 영어학습에 있어 특별히 이러한 학습주도성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는 이유는 물론 그간의 자율성 연구들에서 주도적 학습 능력을 성공적인 영어학습의 중요 요소로 자주 지적해왔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그보다도 우리나라의 영어학습 환경이 학생들의 학습주도성을 효과적으로 키워주고 있지 못하며, 아울러 우리나라 학생들이 자기주도학습능력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면 우리나라 영어학습자들은 과연 자기주도학습능력이 부족한가? 우리의 영어학습 환경은 학생들을 자기주도적인 학습을 하도록 이끌어주고 있지 못한 것인가? 이러한 질문에 객관적인 답변을 내리기는 쉽지 않겠지만, 학습주도성을 연구하기 위한 가장 우선되어야 할 논제임에 분명하다. 김혜영, 김민진(2009)의 초등학교의 자기주도 영어학습능력 연구는 이러한 질문에 답을 제시하려는 최초의 시도였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연구는 초등학교 4, 6학년 학습자와 예비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여, 공교육 영어교육과정의 전반에 걸친 학습자의 변화를 보기 어려우며, 조사대상 표본도 제한된 지역의 세 개의 초등학교에서 선정된 426명으로 이러한 연구 질문에 대한 일반화된 답변을 내리기에는 부족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보다 그 범위를 확대하여, 학교에서 영어를 처음 배우기 시작하는 초등학교에서부터 공교육을 마치는 고등학교까지의 초, 중, 고 세 집단의 학습자를 대상으로 자기주도 영어학습 준비도와 그 집단 별 영어학습주도성의 변화를 조사해보고자 한다. 또한 영어학습주도성과 다른 교과 학습주도성에 차이가 있는지를 비교하기 위해, 일반학습주도성 정도를 조사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학습주도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학습자 특성, 즉 학년, 성별, 학습동기, 영어학습 시작시기, 영어학습방법 등의 상관관계 역시 검토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제시한다.

1. 초, 중, 고 학습자들의 영어학습주도성에는 차이가 있는가?
2. 초, 중, 고 학습자들의 일반학습주도성과 영어학습주도성에는 차이가 있는가?
3. 학습자의 특성에 따라 학습자들의 영어학습주도성에 차이가 있는가?

이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서울, 인천, 경기, 대전 지역의 초, 중, 고교의 1,391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자기주도학습 준비도(Self-Directed Learning Readiness), 와 자기주도영어학습 준비도(Self-Directed Language Learning Readiness)를 각각 검사하여 첫째, 우리나라 영어학습자들의 자기주도학습능력을 검토하고, 둘째, 학년 별 자기주도성의 변화를 비교하고, 마지막으로, 학습주도성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을 검토하고자 한다. 이를 통하여, 우리나라 학습자의 자기주도학습능력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돕고, 공교육을 포함한 우리나라 영어학습환경이 우리의

학습자들의 자기주도학습능력을 성장시키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하는 기회를 제공 할 수 있을 것이다.

II. 이론적 배경

1. 자기주도학습(Self-directed learning) 연구

1) 자기주도학습의 개념 및 특성

자기주도학습 능력은 학습자 스스로 학습을 계획하고, 운영하며, 그 성과에 대한 책임을 인식하는 것으로 평생학습자로서의 인간의 핵심역량으로 인식되어 왔다.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의 보다 구체적인 개념과 특성은 지난 수십 년간 꾸준히 논의되어왔는데, Knowles(1975)의 정의는 여전히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는 자기주도학습이란 학습자 스스로 학습 주도권을 가지고, 학습자 스스로 자신의 학습 요구를 진단하고 학습목표를 설정하며 그 학습에 필요한 인적·물적 자원을 확보하고 적절한 학습전략을 선택하고 실행하며 자신이 성취한 학습 결과를 스스로 평가하는 과정이라고 했고, Spear와 Mocker(1984)는 이에 환경적인 측면을 강조하여, 자신이 처한 환경에 따라 과정을 선택하고 자신의 학습과제를 구조화하려는 경향을 자기주도학습이라고 했다. 이후 Brockett과 Hiemstra(1991)와 Long과 Associates(1993)는 학습과정과 인성측면을 연계하여 학습자가 학습활동의 전 과정에 얼마나 책임을 지고 적극적으로 관여하는 지 여부를 기준으로 보았고, Breen과 Mann(1997)은 ‘자신이 학습할 내용을 어떻게 학습하고 자료를 사용할지 알고 있는 능력,’ ‘언어학습에 대한 욕구가 강하고 자신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바탕으로 판단하여 결정을 내리는 능력’ 등으로 설명하고 있다.

2) 자기주도학습능력 측정

Benson(2010)은 자기주도성은 아직까지 많은 시도와 성공은 없었으나 시험 가능한 구인으로 보았고, 자기주도성을 측정하는 방법에는 측정조사, 관찰조사, 포트폴리오 조사 등이 있다고 하였다. 이 중 일반적으로 자주 시도되는 것이 측정조사이다.

자기주도학습능력에 대한 측정은 스스로 학습을 책임질 수 있는 준비 정도(readiness scale)를 진단하는 것이다. 이러한 준비도를 측정하기 위해 해외에서는 수십 년간 여러 측정 검사들이 개발되었다(Brockett & Hiemstra, 1991; Cotterall, 1995; Guglielmino, 1977; Oddi, 1986; Piling-Comick, 1998). 특히 Guglielmino(1977)의 SDLR(Self-Directed Learning Readiness)은 지금까지 국내외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자기주도학습 준비도 측정검사로 총 58문항, 5-point 척도로 구성되었다.

국내에서도 자기주도학습능력을 측정을 위한 검사의 개발의 필요성이 부각되어, 최근 성인학습자뿐만 아니라 각 학령 별로 다양하게 소개되고 있다. 한지영(2008)은 평생학습 학습성과 평가를 위한 자기주도학습 준비도 검사로 Guglielmino의 SDLR을 사용하여 대학생 218명의 데이터를 통한 요인분석을 실행하여 총 40문항을 23문항으로 최종 압축하였다. 또한 노국향(1999)의 경우 Baumert, Fend, O'Neil과 Peschar(1998)가 개발한 검사지로 우리나라 고등학교 1, 2학년 1,200명을 대상으로 자기주도성을 조사하고, 문항 검사지를 축소 수정한 문항을 소개하기도 하였다. 이윤옥(2008)은 중학교용 자기주도학습 지각도 검사도구를 자체 개발하고 그 타당도를 검토하였고, 김명철, 정태근(2001), 김정환, 박용휘(2003)는 초등학교 고학년 학습자를 대상으로 자기주도학습능력 척도개발을 시도하였다.

또한 김혜영, 김금선(2010)은 SDLRS(Guglielmino, 1977)와 SDLRS-K-96(김지자, 김정성, 유귀옥, 유길한, 1996)을 바탕으로 어린이와, 청소년 연령을 대상으로 수정 보완한 자기주도학습준비도 척도(SDLRS-KE-2010)를 제안하였다. 문항 수는 총 40개이며 7개의 요인항목으로 되어있고, 초등학교도 이해하기 용이하도록, 표현과 문맥을 쉽고, 친숙한 내용으로 수정하였다.

2. 자기주도 영어학습능력

영어학습에 있어서 자기주도성의 속성에 대한 정의도 다양하다. Benson과 Voller(1997)는 학습자율성이라는 말의 정의는 제 2언어교육에서 있어서 최소 다섯 가지 방식으로 해석되어 사용되어 왔다고 지적하였다. 첫째, 학습자가 완전히 자기 스스로 공부를 하는 상황, 둘째, 교육제도에 의해 억눌리게 되는 선천적 능력(inborn capacity), 셋째, 자기주도적 학습을 진행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기술(a set of skills), 넷째, 학습책임감의 훈련(exercise of learners' responsibility), 다섯째, 자신의 학습방향을 결정하는 권리가 그것이다.

영어교과에 있어 자기주도학습능력 향상 방안은 최근 가장 활발하게 연구되고 있는 분야이다. 이에 따라 자기주도 영어학습 능력을 신장시키기 위한 각종 수업모형(신재한, 2007; 윤희백, 1998), 교재 및 코스웨어의 개발(김영미, 2001; 장규화, 노영옥, 2001), 교수방법(이재근, 이영숙, 2005; 이화자, 손화자, 2007; 장진태, 2009), 개별 학습사례 연구(김금선, 김혜영, 2011; 김수은, 오마리아, 2010; 심영숙, 2008) 등이 발표되어 영어학습에 있어서 학습주도성을 신장시키는 방안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논의에서 부족한 것은 '자기주도적인 영어학습능력이 과연 무엇'이며 '이러한 능력의 향상을 어떻게 측정할 것인가'하는 보다 근본적인 부분의 탐구이다. 이들 선행 연구를 살펴보면 자기주도적인 학습능력의 신장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학습자 스스로의 판단에만 의존하거나, 체계성이 결여된 관찰에 의존하고 있는 경우가 많으며, 자기주도학습능력을 '스스로 학습,' '개인학습,' 혹은 '가정학습' 포괄적인 범주나 극

히 제한된 개념으로 정의를 하는 경우도 볼 수 있다.

영어학습주도성을 위한 향상방안 혹은 성공사례 등의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진 것에 비해, 영어학습의 자기주도성, 자율성의 본질에 대한 논의를 했던 국내 연구는 단지 몇 편에 불과하다(김성연, 김원기, 2005; 이문복, 2010; Oh, 2002). 이들 연구에서 다루어진 중점 내용은 영어학습의 자율성 혹은 학습주도성의 변인이 무엇인지에 대한 분석이었다. 김성연, 김원기(2005)에서는 영어학습주도성의 주요변인으로 책임감, 자신감, 상위인지전략사용을 선정하여 이들이 개별적인 영향을 미칠 때 실용영어능력을 유의미하게 설명할 수 있는 것으로 파악하였다. 이문복(2010)은 전국 고등학교 1학년 6,300명의 영어성취도시험점수와 자기조절학습과의 관계를 비교한 결과 자기조절학습 전략의 하위영역인 행동통제, 인지전략, 자기 효능감의 모든 영역에서 영어성취도 시험점수와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Oh(2002)는 성인 학습자 네 명을 대상으로 질적인 연구방법을 통하여, 영어에 대한 학습자의 신념이 기타 외적인 교육변인보다 학습자 자율성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고 결론하였다. 이들 연구 중 우리나라 영어학습자의 자기주도학습능력을 측정한 연구는 김혜영, 김민진(2009)의 초등학교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조사연구가 유일한 것으로 보인다.

김혜영, 김민진(2009)은 총 426명의 4, 6학년 초등학교와 229명의 예비 대학생을 대상으로 자기주도 영어학습능력에 대한 조사를 하였다. 연구결과는 놀랍게도 초등 4학년의 자기주도 영어학습능력이 예비 대학생보다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초등 4학년생은 영어공교육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인 초등 6학년에 이미 학습주도성이 현격히 낮아지는 모습을 보였고, 또한 영어학습주도성은 일반학습주도성에 비해 학습에 대한 사랑, 창의적 접근, 자발적 계획, 책임감수용, 학습자신감 등의 측면에서 유의미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혜영, 김민진(2009)은 이는 우리나라 초등학교를 10년간 이수하면서 영어학습의 자기주도성을 성장시키지 못할 뿐만 아니라 다른 과목에 비해서, 영어학습에 있어 스스로 책임감 있는 학습운용을 하지 못한다고 결론하였다. 그러나 김혜영, 김민진(2009) 연구는 초등학교 학습자와 예비대학생만을 조사함으로써 중학교, 고등학교를 거치면서 학습자들의 주도적 학습능력의 변화추이를 보다 면밀히 검토하기에 부족하다. 뿐만 아니라 조사대상자의 표집이 작고, 특정지역에 국한되어있어 일반화를 시키기 위해서는 더 많은 데이터가 필요하다.

III. 연구방법

1. 연구 대상

본 연구의 조사대상이 된 학생은 총 1,391명으로 초등학교 417명, 중학생 413

명, 고등학생 561명을 대상으로 조사되었다. 먼저 초등학생 집단은 2009년 3월에 표집 되었으며, 이는 김혜영, 김민진(2009)의 연구와 동일한 데이터이다. 본 연구의 대상이 된 초등학생 집단은 서울과 대전의 임의 선정된 3개 초등학교 9개 반의 4학년(197명)과 6학년(220명)이다. 이 두 개의 학년을 선정한 이유는 자기주도적 학습을 측정할 수 있는 최저연령을 4학년으로 보았고, 초등영어교육을 받기 시작하여 1년 이상이 경과하였으며, 연령별 변화에 따른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2년 정도의 학습경험이 쌓인 6학년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하여 선정하였다. 남 217명, 여 200명으로 성비는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았다.

둘째, 중학생 집단은 총 413명으로 1학년 159명, 2학년 254명으로 구성되었으며, 남자 194명 여자 219명이었다. 이들 학생들은 인천, 서울, 경기지역의 1개교씩, 총 3개 학교 학생이었다. 셋째, 고등학교 집단은 총 561명으로, 1학년 137명, 2학년 179명, 3학년 245명으로 구성되었으며, 남자 363명, 여자 198명으로 남자가 여자보다 많았다. 중, 고등학생 집단 역시 편의 표집으로, 선정된 반 학생 전원이 검사에 참여하였고, 성적으로 구분하지 않았으므로, 학업 및 영어능력에 있어 상, 중, 하가 공존하는 집단이었다. 본 연구의 검사 대상자 1,391명은 동질집단으로 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처치를 통하여 일부를 제외한 숫자이다. 첫째, 검사결과가 유의하게 차이가 나는 2개교를 제외하였다. 이들 학교는 비평준화 고교로 검사결과 다른 집단에 비해 현저하게 높은 자기주도학습 준비도를 보였다. 둘째, 연령과 남녀 비율을 맞추기 위하여 일부 남학생과 고등학생 데이터를 임의로 제외하였다. 김혜영, 김민진(2009)에 따르면 성별은 자기주도학습 준비도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분석된 바 있다. 셋째, 문항에 성실하게 응답하지 않은 데이터를 제외하였다. 위에 설명한 표집 집단의 학년, 성별, 지역 분포를 표 1에서 요약하였다.

표 1
조사대상 집단의 학교, 학년, 성별, 지역 분포

학교	학년		성별		지역				전체	
	1	2(4)	3(6)	남	여	서울	경기	인천		대전
초등		197	220	217	200	261			155	417
중등	159	254		194	219	167	177	69		413
고등	137	179	245	363	198	333	228			561
전체				774	617	758	405	69	155	1,391

2. 측정 도구

본 연구에서 사용되었던 설문지는 세 가지 영역으로 구성되었다. 1)기초조사 2)(일반) 학습주도성 준비도 검사(SDLRS-KE-2010, 김혜영, 김금선 2010), 3)영어 학습주도성 준비도(SDLLR, 김혜영, 김민진, 2009) 검사이다. 각 영역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1) 기초조사

학습주도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 관심을 두었던 변인은 1)연령, 2)영어 학습동기, 3)성별, 4)사교육시작시기, 5)영어사용국가 체류경험 6)거주지역 등이었다. 따라서 기초조사는 이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간단한 여섯 개의 질문문항으로 구성하였다(부록1 참조).

2) 학습주도성 준비도 검사도구: SDLRS-KE-2010(김혜영, 김금선 2010)

본 연구에서 사용되었던 SDLRS-KE-2010은 Guglielmino(1977)의 학습주도성 준비도 측정(Self-Directed Learning Readiness Scale)을 김지자 외(1996)가 한국어로 번역하고, 요인분석을 통하여, 수정 제안하였던 SDLRS-K-96을 바탕으로 수정 개발한 것이다. SDLRS-KE-2010의 항목의 수는 총 40개이며 7개의 요인항목으로 되어있고, 초등학생도 이해하기 용이하도록, 표현과 문맥을 쉽고, 우리 교육 상황에 친숙한 내용으로 수정하였다. SDLRS-KE-2010의 40개 문항에 대한 검사의 Cronbach alpha 계수가 .907로 나타나 검사 결과의 신뢰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인타당도의 조사결과 총 9개의 학습주도성 구성요인이 나타났으며 신뢰도평균은 .67이었다.

3) 영어학습주도성 측정(SDLLR)

본 연구에서는 김혜영, 김민진(2009)의 연구에서 소개한 SDLLR을 그대로 사용하였다. 문항은 영어학습과 관련된 내용으로 구성된 총 20문항으로, SDLRS-KE-2010(김혜영, 김금선 2010)의 동일한 질문을 일반학습에서 영어학습으로, 일반 학습상황을 영어 학습 상황으로 변경하여 수정된 것이다. 예를 들어 ‘공부는 평생 하는 것이다’이면 ‘영어공부는 평생 하는 것이다.’ 혹은 ‘나는 사물에 관해 호기심을 갖고 있다.’를 ‘나는 영어권(미국, 영국 등) 문화에 관해 호기심을 갖고 있다’로 수정하였다(부록 참조). SDLLRS의 20개 문항에 대한 검사의 Cronbach alpha 계수가 .850으로 신뢰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개 문항의 구인타당도 분석을 위한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를 실시한 결과 고유치가 1 이상인 요인 수는 4개로 나타났다. 이들의 설명된 총 분산은 52.560이었다. 표 2은 설명된 총 분산을 보여준다. 요인구조와 회전된 성분행렬표에 따른 요인별 선정문항은 표 3과 같다.

표 4는 요인분석결과에서 나타난 4개의 요인의 속성을 선행연구의 요인 분류를 고려하여 수정, 보완한 명칭이다. 구성요인 별 신뢰도는 대체적으로 높은 편이었으나(3개 요인 평균 신뢰도 .753), 요인 4의 경우 신뢰도가 매우 낮았고, 특히 문항 5 ‘나는 영어선생님께서 우리에게 정확하게 하나하나 설명해 주시기를 바란다’는 재검토 해 보아야 할 문항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표 2
영어학습주도성 측정도구의 구인타당도 분석: 설명된 총 분산

성분	초기 고유값			추출 제곱합 적재값			회전 제곱합 적재값		
	합계	% 분산	%누적	합계	% 분산	% 누적	합계	% 분산	% 누적
1	6.448	32.239	32.239	6.448	32.239	32.239	4.270	21.349	21.349
2	1.862	9.311	41.550	1.862	9.311	41.550	3.423	17.114	38.463
3	1.125	5.625	47.175	1.125	5.625	47.175	1.483	7.415	45.878
4	1.077	5.385	52.560	1.077	5.385	52.560	1.337	6.683	52.560
5	.978	4.889	57.449						
6	.894	4.468	61.917						
7	.829	4.145	66.062						
8	.733	3.667	69.729						
9	.698	3.492	73.221						
10	.695	3.477	76.698						
11	.651	3.256	79.955						
12	.627	3.134	83.089						
13	.598	2.990	86.079						
14	.508	2.538	88.616						
15	.496	2.478	91.094						
16	.460	2.300	93.394						
17	.431	2.156	95.550						
18	.381	1.907	97.457						
19	.331	1.657	99.115						
20	.177	.885	100.000						

표 3
영어학습주도성 측정도구의 구인타당도 분석: 회전된 성분행렬표

	성분			
	1	2	3	4
EA2.8	.798	.185	.111	-.116
EA3.7	.691	.101	-.093	.147
EA3.3	.679	.181	.064	.152
EA8.9	.665	.216	.102	.079
EA7.6	.630	.139	.180	-.420
EA2.17	.544	.321	.092	.002
EA3.20	.488	.300	.195	.003
EA4.10	.484	.127	-.045	.285
EA6.2	.480	.162	.350	.029
EA1.15	.167	.796	.068	.132
EA1.1	.107	.758	-.022	.024
EA2.16	.172	.724	-.010	.036
EA1.13	.461	.571	.259	.054
EA1.4	.499	.567	.230	.089
EA3.19	.287	.528	-.119	.126
EA9.18	.216	.480	.104	.354
EA8.14	.065	-.207	.721	-.099
EA8.12	.109	.245	.707	.086
EA5.5	.054	-.223	.101	-.715
EA4.11	.421	.026	.254	.560

Note. 요인추출방법-주요인 분석, 회전방법-KAISER 정규화가 있는 Varimax

문항 5번에 대한 응답 결과를 제외시킨 후 그 결과를 분석하였다.

표 4
탐색적 요인분석결과 선정된 구인별 문항의 분류

구 성 요 인		총 문항	해당 문항	신뢰도(α)
1	영어자신감, 책임감,	9	2, 3, 6, 7, 8, 9, 10, 17, 20	.830
2	영어학습동기(학습사랑, 미래계획)	7	1, 4, 13, 15, 16, 18, 19	.835
3	영어학습방법의 주도성	2	12, 14	.596
4	독립적 학습	2	5, 11	.293

3. 연구 절차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절차에 의해 진행되었다. 첫째, 앞서 소개한 측정도구인 설문지를 해당 중, 고등학교에 보내어 사전에 논의된 협력 교사에게 보내어 설문조사를 시행하였다. 설문지는 각 교사가 수업시간에 배포하였으므로, 회수율은 95% 이상이었다. 둘째, 수거된 설문지를 분류하여 학교, 학년별로 분류한 후 데이터를 코딩 하였다. 데이터코딩을 위하여 PASW Statistics 18을 사용하였다. 셋째, 동일한 방식으로 수집, 분석된 김혜영, 김민진(2009)의 초등학생 413명의 데이터를 합하여 총 세 집단의 통합 데이터를 구축하였다. 이때 유의미하게 이질적인 두 개교의 데이터를 제외하였다. 마지막으로 학습주도성 비교, 상관관계, 타당도 분석을 위한 요인분석 등을 위하여 PASW Statistics 18을 활용한 통계처리를 하였다. 통계처리 시에는 신뢰도분석, t-검정, 상관분석, 일원분산분석, 요인분석 등을 주로 적용하여 결과분석을 하였다.

IV. 연구결과

1. 연령별 영어학습주도성

표 5에서 보는 것처럼 연령별 세 집단을 비교한 결과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영어학습주도성은 점차적으로 낮아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초등학생의 영어학습주도성 준비도의 평균값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M=3.354$), 그 다음으로 중학생($M=3.107$), 고등학생($M=3.0866$)이 제일 낮은 영어학습주도성 지수를 보였다. 표 6의 일원분산분석결과 유의수준 .05 수준에서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F=2.959$ $p=.000$). 이들 세 집단의 평균값은 3.174로 Guglielmino 기준 ‘중, 하’에 해당한다.

이에 대한 Scheffé 사후검정결과를 보면 다음과 같이 각각 초등학생과 중학생, 초등학생과 고등학생의 집단간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5
연령별 영어학습주도성 평균 기술통계

연령	N	최소값	최대값	합계	평균	표준오차	표준편차
초등학생	417	1.40	4.70	1398.56	3.354	.032	.652
중학생	413	1.40	4.80	1283.22	3.107	.029	.580
고등학생	561	1.40	5.00	1731.57	3.087	.024	.568
합계	1,391				3.174	.016	.612

표 6
연령별 영어학습주도성 일원분산분석 결과

연령	제곱합	자유도	제곱평균	F	p
집단-간	20.184	2	10.092	2.959	.000
집단-내	500.999	1,388	.361		
합계	521.182	1,391			

중학생과 고등학생간의 차이는 유의미하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7 참조).

표 7
연령별 세 집단의 영어학습주도성 차이 사후검정

(I) 연령	(J) 연령	95% 신뢰구간				
		평균차(I-J)	표준 오차 오류	유의확률	하한값	상한값
초등학생	중학교*	.25046	.04171	.000	.1483	.353
	고등학교*	.27095	.03885	.000	.1758	.366
중학생	초등학교*	-.25046	.04171	.000	-.3527	-.148
	고등학교	.02050	.03895	.871	-.0750	.116
고등학생	초등학교*	-.27095	.03885	.000	-.3661	-.176
	중학교	-.02050	.03895	.871	-.1160	.075

* $p < .05$

2. 연령별 일반학습주도성과 영어학습주도성 비교

1) 자기주도학습 준비도(일반)

표 8은 영어교과가 아닌 학습전반의 자기주도학습 준비도를 연령별로 검토한 결과이다. 일반학습주도성 역시 영어학습주도성의 결과와 유사하게 초등학생의 평균값이 가장 높게 측정되었다. 이후 중학교에 진학한 학생들은 현격히 낮은 자기주도학습 준비도를 보였고, 이후 고등학교에서는 유의미한 향상을 보이지

만, 여전히 초등학생과 비교하여 자기주도학습 준비도가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즉 자기주도학습준비도가 높은 순서는 초등학생($M=3.469$) 고등학생($M=3.258$), 중학생($M=3.160$)의 순서였으며, 초등학생과 중학생($t=9.573$, $p=.000$), 초등학생과 고등학생($t=7.159$, $p=.000$), 중학생과 고등학생($t=-3.613$, $p=.000$)간의 차이에 대한 유의미성을 검토한 결과 세 집단 모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표 8
연령별 자기주도학습(일반)준비도 비교

연령	N	최소값	최대값	합계	평균	표준편차
	통계량	통계량	통계량	통계량	통계량	통계량
초등학생	417	1.84	4.65	1446.73	3.469	.0248
중학생	413	1.70	4.65	1305.10	3.160	.0207
고등학생	561	1.68	4.53	1827.71	3.258	.0176
합계	1,391	1.68	4.65	4579.54	3.292	.0124

2) 일반학습주도성과 영어학습주도성의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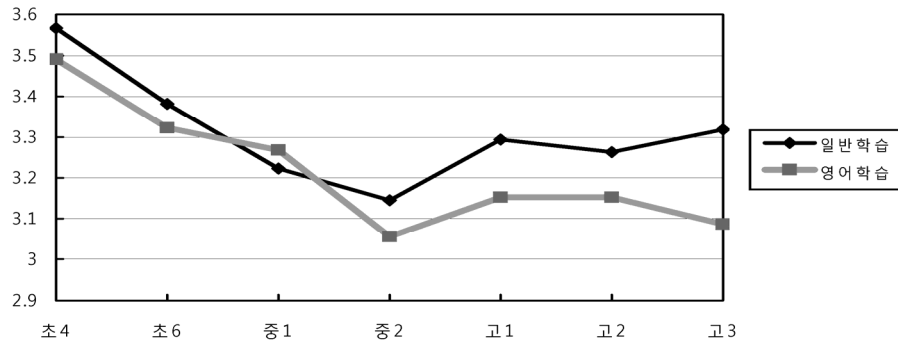
표 5와 표 8에서 검토해본 영어학습주도성 평균($M=3.174$)과 일반 학습주도성 평균값($M=3.292$)을 비교해보면 일반학습주도성이 전반적으로 더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차이에 대한 유의미성을 검토해 본 결과는 표 9와 같다.

표 9
일반학습주도성 대 영어 학습주도성의 t-검정(대응표본) 결과

	평균	표준편차	표준오차	t	df	p
일반 학습주도성						
- 영어 학습주도성	.1184	.4668	.0125	9.459	1390	.000

즉 영어학습주도성이 일반 학습주도성보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해서 학습자는 다른 과목에 비해서, 영어교과를 학습하는 데 있어서, 자기주도성이 유의미하게 부족하다고 말할 수 있다. 이러한 차이를 연령 집단 별로 그 변화를 비교해보면 그림 1과 같이 나타난다. 즉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3학년까지 학습자는 일반학습의 경우, 초등학교4학년부터 중학교로 가면서 급격한 하락을 보이고 있지만, 중학교 2학년을 중심으로 다시 상승하면서 학습주도성이 점차 향상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영어학습의 경우에는 두 영역모두에서 학습주도성이 점차적으로 하강하는 변화를 보여주고 있으며 일반학습의 경우 중학교 2학년에서 가장 낮은 지표를 보여주고, 고등학교 진학한 이후에는 점차 향상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면 영어학습의 경우 전

그림 1
일반학습주도성 대 영어학습주도성의 비교(학년별)



체적으로 계속적인 자기주도성의 하락을 보이며 고등학교 진학 이후에도 큰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더욱이 그림 1을 통하여 알 수 있는 것은 일반학습과 영어학습간의 주도성은 초등학교 4학년 때는 거의 그 차이가 없지만 학년이 올라감에 따라 점차 더 큰 차이를 보여주고 있는 사실이다.

그밖에 Pearson 상관계수 검토결과 일반학습주도성과 영어학습주도성간에는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0.665, 유의수준 .01에서 $p=.000$).

3. 학습자 특성 별 영어학습주도성

1) 영어학습에 대한 흥미

본 연구의 조사 응답분석 결과, 영어학습에 대한 느낌, 즉 학습자의 영어학습에 대한 흥미 여부는 영어학습주도성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어 학습을 ‘즐거움’이라고 응답한 조사자 475명의 영어 학습에 대한 자기주도능력은 평균 3.647이었고, ‘부담 혹은 스트레스’라고 말한 360명의 평균 영어학습주도성 준비도는 3.06이었으며, ‘아무 느낌 없음’이라고 응답한 조사자 540명의 평균값은 이보다 훨씬 더 낮은 2.834 에 불과하였다. 부담 혹은 스트레스보다도 영어학습에 대한 아무런 관심이 없는 것이 더 낮은 학습동기의 표현일 수 있다고 보여진다. 이러한 평균값 차이는 표 10의 일원분산분석과 Shaffé 사후분석결과($F=148.131$ $p=.000$)에 따르면 세 집단 간에 모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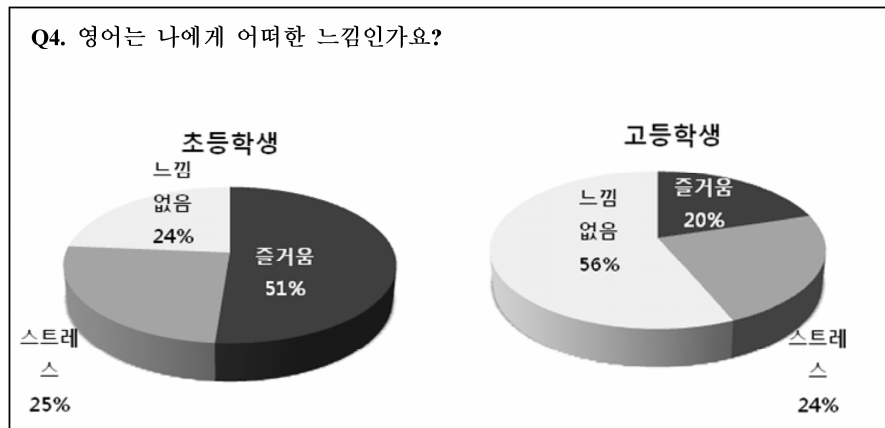
집단 별 영어학습에 대한 느낌을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해 초등학생집단과 고등학생집단의 데이터를 그림 2와 같이 비교, 분석하였다. 그림 2에서 보면 초등학생과 고등학생의 영어학습에 대한 느낌이 매우 상이함을 알 수 있다. 초등학생의 경우 반 이상의 학생이 영어는 ‘즐거움 느낌’이라고 응답한 데 반하여, 고등학생의 경우 영어학습을 즐거움이라고 받아들이는 학생은 20%에 불과했다. 또한 ‘스트레스’라고 응답한 사람은 각각 25%, 24%로 초등학생과 고등학

표 10
학습흥미별 영어학습주도성 비교를 위한 일원분산분석결과

	제곱합	자유도	제곱평균	<i>F</i>	<i>p</i>
집단-간	172.682	2	86.341	346.835	.000
집단-내	341.545	1,372	.249		
합 계	514.227	1,374			

생에서 비슷한 비율을 보이는 반면, ‘아무런 느낌 없음’과 같이 영어학습에 대한 별다른 느낌이 없다고 응답한 초등학생은 24%인데 반해, 고등학생은 56%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2
초등학생과 고등학생의 영어학습 동기비교



2) 성별

전체 응답자를 성별로 비교하였을 때, 표 11과 같이 여학생이 영어주도학습 준비도($M=3.243$, $SD=.647$)가 남학생의 준비도($M=3.120$, $SD=.578$)에 비해 유의미하게 높았다($t=-3.735$, $p=.000$).

표 11
성별에 따른 영어학습주도성 준비도 평균 t검정결과*

연령	N	M	SD	<i>df</i>	<i>t</i>	<i>p</i>
남	774	3.120	.578	1383	-3.735	.000**
여	611	3.243	.647			

* 등분산 가정된 경우

**유의수준 $< .05$

3) 해외체류경험

해외 체류경험은 영어학습주도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 표 12에서 보는 것처럼 독립표본 *t*검정 결과, 해외체류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의 학습주도성은 체류경험이 없는 사람과 평균값이 무려 0.3이상 높아,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평균값 0.3차, $t=4.421$). 그러나 체류기간에 따른 일원분산분석 결과 그 기간에 따른 집단 간에는 별다른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F=3.31$, $\alpha=0.21$). 1년 미만이라고 응답한 사람과 4년 이상이라고 말한 응답자간에도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Scheffé 사후검정 $p=.279$, $SE=.140$)

표 12
해외체류경험에 따른 영어학습주도성 준비도 평균 *t*검정결과

체류경험여부	N	M	SD	df	<i>t</i>	ρ
있다	308	3.443	.607	1386	8.970*	.000
없다	1,080	3.098	.5981			

4) 영어교육 시작시기

본 연구결과에 따르면 영어교육시작시기는 영어학습의 주도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치원이전에 영어교육을 시작하였다고 응답한 학생의 영어학습주도성 평균은 3.558인데 반하여 공교육시작시기였던 3-4학년 부터라고 응답한 학생의 평균은 2.997에 불과하였다. 또한 Scheffé 사후검정결과 조사된 네 개의 집단간에 모두 유의미한 차이가 있어, 영어교육시작시기는 유의미한 요인임이 증명되었다(표 13, 표 14 참조).

표 13
영어학습시작시기에 따른 학습주도성 준비도 평균비교

시작시기	N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오차	표준편차
유치원이전	101	1.50	5.00	3.5583	.06965	.699
유치원 때	394	1.40	5.79	3.3107	.03095	.614
초등1-2년	380	1.40	4.70	3.1700	.02812	.548
초등3-4년	506	1.40	4.60	2.9965	.02562	.576
합 계	1,381	1.40	5.79	3.1750	.01647	.612

5) 지역

본 연구결과에서는 김혜영, 김민진(2009)의 연구결과와는 달리 지역별 격차는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서울, 인천, 경기, 대전지역간 조사 응답자의 분포가 고르지 않아(인천은 모두 중학생, 대전은 모두 초등학생), 지역별 비교의 객관적인 데이터 분석 결과를 제공하지 못하였다.

표 14
학습시작시기별 영어학습주도성 비교를 위한 일원분산분석결과

	제곱합	자유도	제곱평균	F	p
집단-간	38.217	3	12.739	36.633	.000
집단-내	478.843	1377	.348		
합 계	517.060	1380			

V. 논의 및 결론

1. 연구문제 1: 초, 중, 고 학습자들간 영어학습주도성의 차이

조사결과 초, 중, 고 학습자들의 영어학습주도성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초등학생의 영어학습주도성은 평균 3.354 이었고, 중학생은 이보다 유의미하게 낮은 3.107, 고등학생 역시 초등학생보다 유의미하게 낮은 3.087으로 초등학교 이후 영어학습주도성이 향상되기보다는 하락하는 경향을 볼 수 있었다.

세 집단 학습자의 영어학습주도성 평균은 3.173으로, Guglielmino의 기준으로 볼 때, 초등학생집단은 ‘중·하’ 이고, 중·고등학생집단은 ‘하’수준에 해당한다. 그러나 학습주도성 정도를 절대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며, 좀 더 객관적인 기준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그보다도 본 연구를 통하여 분명히 알 수 있었던 것은 연령이 높아지고, 초, 중, 고 영어학습이 진행된 이후에도 영어학습주도성이 향상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영어학습을 계속적으로 이어가면서 자기주도적인 학습능력이 향상되어야 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실제로는 오히려 더 의존적이 되어간다는 것은 우리나라의 영어교육에 심각한 논의점이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김혜영, 김민진(2009)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며, 본 연구는 그 시점이, 초등 6학년과 중학교 2학년 사이에 가장 하락의 정도가 가장 심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2. 연구문제 2: 일반학습주도성과 영어학습주도성의 차이

일반학습과 영어학습주도성의 세 집단 전체 평균값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고, 일반학습에 대한 자기주도학습 준비도가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일반학습의 경우 세 집단의 자기주도학습 준비도는 그림 1에서 보는 것처럼 완만한 V자 형태로, 초등학교 평균이 가장 높으며, 중학교 평균이 가장 낮게 하강하다가, 다시 고등학교로 가면서 주도성이 상승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면, 영어학습의 경우 학습주도성의 준비도는 점차적으로 하강하는 그래프를 보여준다. 특히 일반학습과 영어학습모두 초등학생의 자기주도학습 준비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다른 학년 집단보다 그 평균이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는 점은 우리나라

라 교육이 자기주도학습능력의 향상이라는 점에서 문제가 있음을 드러낸다고 결론할 수 있다. 특히 그림 1에서 영어학습에 있어서는 이러한 문제가 보다 심각하며, 일반학습주도성과 영어학습주도성의 차이는 학년이 올라감에 따라 점차 더욱 커진다는 점도 확인할 수 있었다.

3. 연구문제 3: 학습자의 특성에 따른 영어학습주도성의 차이

첫째, 본 연구에서 영어학습주도성은 학습자의 영어학습에 대한 느낌, 학습에 대한 흥미여부와 매우 높은 상관관계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 학습동기가 높은 집단(영어학습을 ‘즐거움’이라고 평가한 집단)은 ‘부담이나 스트레스,’ 혹은 ‘아무 느낌 없음’이라고 응답한 집단에 비해 자기주도 영어학습능력이 훨씬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영어학습에 무관심하거나 학습동기가 낮다고 추정되는 ‘아무 느낌 없음’ 응답자는 초등학생 비율(24%)에 비해 고등학생에서 두 배 이상(56%)이나 증가하여, 영어학습에 대한 흥미상실, 무관심이 영어교과에 대한 자기주도학습 준비도에 영향을 미치는 원인일 수 있다는 추정이 가능하다.

둘째, 해외체류경험, 영어학습시작시기도 학습주도성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해외체류 유 경험자는 그 체류기간에 상관없이 무 경험자보다 유의미하게 높은 준비도를 보였고, 영어학습 시작시기가 이르면 이를수록 더 높은 준비도를 보여주었다. 이는 지나친 사교육 비용이 사회적인 문제를 야기하는 우리나라에서 민감하고, 달갑지 않은 결과이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가 의미하는 것은 중요한 시사점은 공교육 이외의 영어학습경험은 내적인 동기와 학습에 대한 사랑을 심어주었는데 반해, 공교육 기간 중의 영어교육은 사실상 본질적인 목표 언어에 대한 사랑과 내적 학습 동기를 향상시키는데 주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학습주도성을 저하시키는 근본적인 원인 중 하나일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셋째, 여학생의 영어학습주도성이 남학생에 비해 유의미하게 높았다. 성별이 자기주도학습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중 하나임은 김혜영, 김민진(2009)의 연구에서도 밝혀진 바 있다. 이러한 결과 역시 학교에서 학생들을 개별적으로 지도함에 있어서 중요한 참고사항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된다.

본 연구의 제한 점은 다음과 같다. 자기주도학습 능력을 구성하는 구인 별 분석을 하지 못했다. 이는 문항의 요인분석 시에 발견된 일부 문항(특히 삭제 후 분석된 5번 문항)과 요소의 문제점과, 각각의 속성에 대한 규정을 보다 면밀히 분석하는 작업의 필요성을 인식하였기 때문이다. 즉 본 연구의 결과는 측정도구가 불완전한 상태에서 분석된 것임을 다시 한번 밝힌다. 둘째, 세 집단 1,391명의 학습자를 조사하였지만 이 역시도 우리나라 학습자를 대표한다고 보기에는 부족한 숫자이다. 이 연구의 결과에 지역적인 다양성 부족이나 학습자의 편의 표집이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우리나라 영어교육과정이 자기주도학습능력의 향상이라는 점에서 재 검토될 필요가 있음을 명백히 보여주었다. 우리는 국가적으로 영어교육에 많은 비용을 지불하고 있으며, 보다 경쟁력 있는 공교육의 기회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고 있다. 여기에 자기주도적인 학습자를 기른다는 우리의 궁극적 교육목표가 말 뿐이 아닌 그 실체에 도달하기 위해서 부족한 부분은 무엇이며, 개선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자기주도적인 학습능력과 우수한 영어실력과 상관관계가 있음을 고려해볼 때, 교육과정의 설계 및 평가항목에서도 이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지침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학생, 교사, 학부모, 영어정책가 등 영어교육에 관심이 있고 영어학습의 선택권이 있는 사람들이 영어능력 평가뿐 만 아니라, 영어학습자의 자율성, 자기주도성 정도를 평가하고 파악하는 데에도 보다 관심을 가지기를 바란다. 또한 관련분야의 연구자들이 앞으로 영어교육과정 및 학습방안 연구나, 학습주도성의 효과에 대한 연구를 함에 있어서 본 연구에서 제시한 조사방법을 개선하여 널리 활용하기를 기대한다.

참 고 문 헌

- 김금선, 김혜영. (2011). 초등영어학습자의 자기주도학습 과정과 저해요인 연구. *Foreign Languages Education*, 18(1), 95-120.
- 김명철, 정태근. (2001).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척도 개발에 관한 연구. *초등교육연구*, 16, 1-16.
- 김성연, 김원기. (2005). 학습자 자율성과 실용영어능력에 관한 연구. *영어교육연구*, 17(3), 107-129.
- 김수은, 오마리아. (2010). 예비초등교사 2명의 영어학습자 자율성. *전주교육대학교 초등교육연구*, 19(2), 139-149.
- 김영미. (2001). 자기주도적 학습을 위한 중등영어 교재개발의 방향성. *열린교육연구*, 9(1), 67-103.
- 김정환, 박용휘. (2003). 초등학교 고학년용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진단 척도의 타당화. *교육평가연구*, 16(1), 183-199.
- 김지자, 김정성, 유귀옥, 유길한. (1996). 초등학교 교사를 위한 자기주도학습 준비도 측정도구의 개발과 활용방안. *사회교육학연구*, 2(1) 1-25.
- 김혜영, 김금선. (2010). 초등학생용 자기주도학습능력 검사의 탐색 및 개발. *교육종합연구*, 8(1), 21-42.
- 김혜영, 김민진. (2009). 초등학생의 자기주도적 영어 학습능력 조사연구. *초등영어교육*, 15(3), 37-55.
- 노국향. (1999).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개발을 위한 탐색적 시도. *교육과정평가연구*, 2(1),

- 신재한. (2007). 심화·보충형 수준별 영어수업 모형 개발·적용이 말하기·듣기 능력과 자기주도적 학습태도에 미치는 효과. *교육과정평가연구*, 10(2), 103-124.
- 심영숙. (2008). 학습일기를 통한 대학생 영어학습자의 자기주도학습 관찰. *Foreign Languages Education*, 15(3), 315-343.
- 윤희백. (1998). 창의력 증진을 위한 학습자 주도적 영어수업 모형. *초등영어교육*, 4(2), 73-96.
- 이문복. (2010). 고등학생의 영어 성취도가 자기주도 학습에 미치는 효과 연구. *순천향인문과학논총*, 25, 163-188.
- 이윤옥. (2008). 초등학교 고학년용 자기주도학습 지각도 검사 개발을 위한 예비 연구. *야동교육*, 17(2), 19-30.
- 이재근, 이영숙. (2005). 초등학교 학생용 영어CD-ROM 타이틀을 활용한 효과적인 자기주도적 영어 학습 방안. *Studies in English Education*, 10(1), 69-97.
- 이화자, 손화자. (2007). 자기주도적 학습을 위한 전략활용 영자신문 읽기지도. *Studies in English Education*, 12(1), 1-24.
- 장규화, 노영옥. (2001).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신장을 위한 영어 학습 웹 코스웨어의 설계 및 구현. *교육과학연구*, 6, 215-229.
- 장진태. (2009). 영어 성찰일지 쓰기를 통한 자기주도학습의 향상. *교과교육학연구*, 13(4), 697-716.
- 한지영. (2008). 평생학습 학습성과 평가를 위한 자기주도학습 준비도 검사도구 (SDLRS)의 타당성 연구. *공학교육연구*, 11(4), 64-75.
- Baumert, J., Fend, H., O'Neil, H. F., & Peschar, J. L. (1998). *Prepared for life-long learning frame of reference for the measurement for self-regulated learning or as a cross-curricular competency in the PISA Project*. Paris: OECD.
- Benson, P. & Voller, P. (1997). *Autonomy and independence in language learning*. London: Longman.
- Benson, P. (2010). Measuring autonomy: Should we put our ability to the test? In A. Paran & L. Sercu (Eds.), *Testing the untestable in language teaching and learning* (pp. 77-97). Clevedon, UK: Multilingual Matters.
- Breen, M. P., & Mann, S. (1997). Shooting arrows at the sun: Perspectives on a pedagogy for autonomy. In P. Benson & P. Voller (Eds.) *Autonomy and independence in language learning* (pp. 132-149). London: Longman.
- Brockett, R. G., & Hiemstra, R. (1991). *Self direction in adult learning: Perspectives on theory, research, and practice*. London: Routledge.
- Cotterall, S. (1995). Readiness for autonomy: Investigating learner beliefs. *System*, 23(2), 195-205.
- Knowles, M. (1975). *Self-directed learning: A guide for learners and teachers*. New York: Association Press.

- Guglielmino, L. M. (1977). *Development of the self-directed learning readiness scale*.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Georgia.
- Long, H. B., & Associates. (1993). *Emerging perspectives of self-directed learning*. Norman, OK: Oklahoma Research Center for Continuing Professional and Higher Education.
- Oddi, L. F. (1986).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an instrument to identify self-directed continuing learners. *Adult Education Quarterly*, 36(2), 47-107.
- Oh, M. (2002). *Four Korean adult learners' ESL learning beliefs and learner autonomy*.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New York in Buffalo, Buffalo, New York.
- Pilling-Cornick, J. (1998). The self-directed learning perception scale: A step toward a toolbox approach to instrumentation proposed for self-directed learning. In H. B. Long, & Associates (Eds.), *Self-directed learning: Application and theory* (pp. 159-168). Norman, OK: Public Managers Center, College of Education, University of Oklahoma.
- Spear, G. E., & Mocker, D. W. (1984). The organizing circumstance: Environmental determinants in self-directed learning. *Adult Education Quarterly*, 35, 1-10.

부 록: 영어학습주도성 검사지(김혜영, 김민진, 2009)

() 학교 ()학년 ()반 ()번 성별 남 / 여

★ 다음 질문을 읽고 알맞은 번호에 동그라미 하세요.

1. 영어를 사용하는 국가에 지내본 경험이 있습니까?
 ① 있다 ② 없다

1-1. 영어사용국가에 머무른 기간은 어느 정도입니까?
 ① 1년 미만 ② 1-2년 ③ 3-4년 ④ 4년 이상

2. 언제 처음 영어공부를 시작하였습니까?
 ① 유치원 이전 ② 유치원 때 ③ 초등학교 1-2학년 ④ 초등학교 3-4학년

3. 영어 공부는 여러분에게 있어 어떤 느낌인가요?
 ① 호기심 혹은 즐거움 ② 부담 혹은 스트레스 ③ 아무 느낌 없음

★ 다음 질문을 잘 읽고, 평소 느낀 점을 솔직하게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답하는 요령은 평소 자신과 일치되는 정도를 해당되는 번호에 O표하면 됩니다.

문 항	설 문 내 용	응답내용				
		전혀 그렇지 않다	그 렇지 않은 편이다	중 간 이다	그 런 편 이다	아 주 그 렇 다
1	영어공부는 평생 필요한 것이다	1	2	3	4	5
2	나는 이해하기 힘든 단어나 문장을 보면 그냥 지나친다	1	2	3	4	5
3	영어 공부 하다가 모르는 것이 있을 때 해결하는 방법을 알고 있다	1	2	3	4	5
4	나는 영어 배우는 것을 좋아한다	1	2	3	4	5
5	나는 영어선생님께서 우리에게 정확하게 하나하나 설명해주시기를 바란다	1	2	3	4	5
6	나는 영어공부를 혼자서는 잘 하지 못한다	1	2	3	4	5
7	내가 알고자 하는 단어나 문장의 내용 등을 찾아내는 방법을 알고 있다	1	2	3	4	5

8	나는 다른 아이들 보다 혼자 힘으로 더 잘 영어를 배울 수 있다	1	2	3	4	5
9	나는 영어공부를 할 때 무슨 내용을 학습할 할 것인지, 어떠한 방식으로 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을 좋아한다	1	2	3	4	5
10	내 영어실력은 나만이 책임을 진다	1	2	3	4	5
11	나는 내가 하는 영어공부가 잘 되고 있는 지 아닌지를 느낄 수 있다	1	2	3	4	5
12	영어시험 성적이 잘 나왔다면 범위의 내용 중에 아직 모르는 것이 있어도 넘어간다.	1	2	3	4	5
13	영어를 배우는 것은 즐겁다.	1	2	3	4	5
14	영어공부 할 때 새로운 방법보다 사람들이 좋다고 말하는 학습법을 따르는 것이 더 낫다	1	2	3	4	5
15	나는 앞으로 성공한 사람이 되기 위해 영어를 더 많이 배우고 싶다.	1	2	3	4	5
16	영어공부는 삶의 도구이다	1	2	3	4	5
17	나는 학원(학교)서나 혼자서나 영어 공부가 잘 된다.	1	2	3	4	5
18	나는 수업시간에 배우는 영어가 앞으로 나의 미래에 어떻게 쓰일지 종종 생각해본다.	1	2	3	4	5
19	나는 영어권(미국, 영국 등) 문화 에 관해 호기심을 갖고 있다.	1	2	3	4	5
20	나는 내 방식대로 영어를 공부해 보는 것을 좋아한다.	1	2	3	4	5

교육단계(Applicable levels): 초등교육(elementary education), 중등교육(secondary education)

주제어(Key words): 자기주도학습(self-directed language learning), 자율성(learner autonomy), 학습 책임(learning responsibility), 동기(motivation)

김혜영, 김은화

중앙대학교 사범대학 영어교육과

156-756 서울특별시 동작구 흑석동 221번지

Tel: 02-820-5399 / 010-2790-5810

Fax: 02-822-5391

E-mail: englishnet@cau.ac.kr, red1315@hotmail.com

접수일: 2011년 12월 31일

수정일: 2012년 2월 10일

게재확정일: 2012년 3월 5일